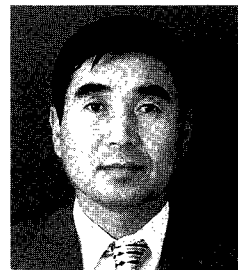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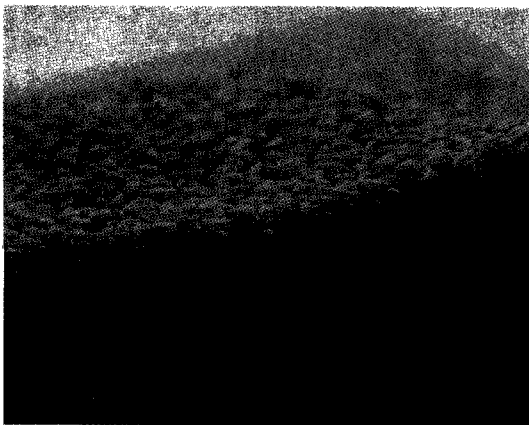
# 사료 양계업 확대로 발전된 후 최종 산물 품질고급화 시도단계 진입



이 무 성  
대한제당(주) 부사장

**이**제 20세기라는 태양은 저물고 21세기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격동의 20세기는 본격적인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양계와 사료산업은 질적, 양



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무엇보다 부업규모의 사육단계에서 전업규모 전문인의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양계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배합사료, 동물약품, 종계장, 부화장, 실용계 농장까지 전문화 및 전업화로 빠르게 진행되어 해당 분야의 사업 역시 괄목할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20세기를 아래의 도표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국민 1인당 총수입은 75년도와 비교하면 590\$ 대비 17배 수준인 10,076\$으로 성장하였다가 IMF의 여파로 7,000\$대로 조정되었으며 20세기의 변화과정 중 IMF는 한 획을 긋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표1. 국민 1인당 총수입(GNI ; 단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년/\$	590	1,592	2,242	5,883	10,076	6,823

두 번째는 첫째와 같이 국민 1인당 총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축산물 특히 양계산물의 소비량은 70년도 5.9kg대비 98년도는 약 9.1kg의 양계산물소비가 증가하였다.

표2. 국민 1인당 양계산물의 소비량(단위 ; kg)

	1970	1980	1990	1995	1998
계 육	1.4	2.4	4.0	5.9	5.6
계란	4.5	6.5	9.2	10.1	9.4
양계 총량	5.9	9.2	13.2	16.0	15

셋째 이러한 양계산물 소비량의 증가는 배합사료 시장의 증가를 가져왔고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사료용 곡물의 수입이 1980년도 2,008천톤 대비 1998년도 8,066천톤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양계용 배합사료는 1970년도 46만톤에서 1998년도 340만톤으로 7배이상 시장규모가 증가하였다.

표3. 사료용 수입 곡물(단위 ; 1,000톤)

	1980	1985	1990	1995	1998
수입총량	2,008	3,749	5,480	8,370	8,066

넷째 이러한 수입곡물의 증가와 함께 가축 사육수 증가와는 반대로 사육 가구수는 급격히 줄어 표4에서 보듯이 부업농에서 전업농으로 바뀌어 갔다.

위에서 보듯이 우여곡절을 겪은 양계사업에

표4. 사육농가수 및 사육수수(단위 ; 1,000)

	1960	1970	1980	1991	1995	1998
사육농가수	1,211	1,338	692	215	203	168
수 수	12,030	23,633	40,130	74,855	85,799	85,847
가구당수수	10	17	58	348	423	511

서 20세기를 마감하여 본다면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농장의 자동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산란계의 경우 무창자동화 계사의 비율이 이미 25% 이상을 넘어서면서 사양관리, 배합사료, 농장규모, 중추장, 부화장, 도계장등 여러 사업이 이에 맞도록 규격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규격화되어 가는 과정에 외국의 선진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농장에서는 견학이나 방문의 형태로 해외현장을 돌아보고, 외국의 업체직원이 한국을 방문하여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사료사업의 태동기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의 형태를 취하였고 발전기에는 우리 나라와 여건이 비슷하여 고밀도 집약화된 축산이 발전한, 유럽지역과의 기술이전이 붐을 이루었다. 이시기에 다시 한번 앞선 축산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축산물의 유행파동이다.

클레스테를, 항생제, 살모넬라, 다이옥신등은 축산물관련 유행 기사나 방송시마다 크고 작은 진통을 겪으면서 수요공급의 원칙과 관계없이 시세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다음은 육계의 계열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이제 육계사업은 글자그대로 병아리부터 외식사업까지의 수직계열화 및 수평계열화를 통한 완벽한 인티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양계에서의 계열화 사업 및 자동화 사업은 다른 축종에서의 자동화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세기를 정리한다면 수입과 관련된 사항이다.

자동화의 일환으로 케이지, 환기설비, 도제 관련장비 및 일부건축자재를 수입함으로써 더 불어 국내 축산관련 기자재사업의 안목을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1997년 수입개방과 함께 양계산물 특히 계육 수입시장은 환율과 연관되면서 급격히 성장하여 양계시장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여 본다면 아래의 상황으로 요약해 보자 한다.

먼저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하고 이를 홍보하여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병아리, 사료의 공급, 선진화된 사양관리 및 축산물유통으로 양질의 신선한 축산물을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도착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된 모든 업



체, 모든 이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축산물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계란의 경우처럼 난 등급에만 기준 한다면 축산업 본래의 근본인 사료효율을 무시하고 또한 계군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난등급에 기준된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 되고 이 또한 어디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며 바람직한 방향은 외국의 경우처럼 총무계를 기준으로 계란을 판매하고 여기다가 신선도(생산일자)에 따라 가격을 감하는 선진 유통형태를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신선도와 총 무계를 기준으로 한 판매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농장별 선물경매방식을 통하여 농장별 생산 제품에 대하여 간접적인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시장경제에 의하여 농장규모, 계란의 품질, 신선도, 등의 란의 선별 등 농장별 등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정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생산자,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계산물에 대한 기준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계육에 관한 사항이다.

육계사업은 가격의 변동폭에 따라 위험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바 이것은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가지고 왔으며 이미 약 70%가 계약사육에 의한 병아리부터 출하까지 계열주체가 주가 되는 수직계열화 형태로 주로 발전하여왔으나 근지에는 상대평가에 의한 수직 및 수평계열화의 방향으로 일부업체는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수입 냉동육의 가공방법 및 기술상의 발전으로 이제 곧 냉장육과 냉동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현 여건에서 무게에 의한 방법으로 계육을 판매하는

방식은 무조건 체중을 증가시키는 방법 일변도의 육계사육방식을 가지고 왔으며 이 또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면 도계장에서 수출에 의한 정산방식을 택한다면 농장에서 사육된 축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으로 가는 보다 근접된 사육방식에 가까이 갈 수 있을듯하며 이는 총체적으로는 수입축산물과는 차별화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을 듯하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양계산업은 수입축산물과의 경쟁 및 유통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양계사업에 구성원인 각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관리하여 간다면 21세기는 20세기보다 더 보람되고 활기찬 새로운 천년으로 축산업에 밝은 첫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계**

## 장인정신의 선진중추 전문농장

### 최고의 산란계 중추만을 공급하겠습니다

중추 농장과 산란계 농장간의 직거래 실현을 위해서 중추위탁 사육을 의뢰할 산란계 농가나, 중추계약 사육을 의뢰할 산란계 농장을 모집합니다

- 2000년 1월 10일경 입추해서 3월 하순경 출하예정
- 계약 사육인 경우 시세보다 마리당 200~500원은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지하 200m 이하에서 나온 양질의 물을 공급해 사육했습니다
- 산란계 중추사육 만큼은 1인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2월초에 이사브라운, 로만 4만수 판매예정 (미리예약 받습니다)

**선진중추**

농장위치 :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상담전화 : 011-724-4259